

함께하면 희망

‘국민철도 · 국민건강 지킴이’가 되어주세요.

지킴이가 되어 국민철도 · 국민건강 지키기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.

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.

jinbomedical.net



함께하면
희망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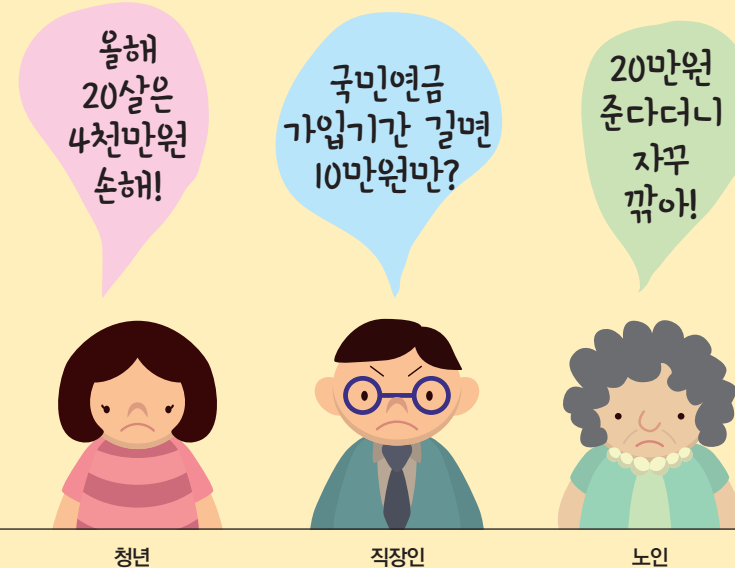
대통령의 거짓말

“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
하지 않습니다”



- 대선공약인 ‘복지와 경제민주화’는 어디로?
- 국민 동의 없는 민영화 없다더니 철도, 병원, 교육, 전기, 상수도까지 민영화!
- 공공부문 정상화 외치며 친박 인사 114명 ‘낙하산 임명’
- 재벌 위한 ‘규제완화’는 민영화를 위한 준비!

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



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더니,
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10만원밖에 안 주고
하위 70% 노인에게만 2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.



의료민영화 ·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
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

자회사



철도

공공재인 철도를 쪼개 이윤을 향한 경쟁에 불이다

-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화물 · 차량 정비 · 시설 유지 보수 등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로 분할한다.
-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 할 수 없는 ‘수익성 위주의 운영’을 본격화한다.
-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를 분할하자 각종 비용이 중복되어 비효율성이 늘어난다.
- 자회사 지분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열어 준다.



의료

자회사를 세워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을 하게 하다

- 병원에 자회사가 생기며 그나마 버텨오던 국민 건강권, 의료공공성은 무너지고 병원의 역할이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주식회사로 변질된다.
- 자회사가 의료기기부터 헬스, 화장품, 온천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, 병원은 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가 된다.



철도

돈 안 되는 노선은 가라! 아니면 돈을 많이 내시든가

- KTX와 같은 흑자 노선의 수익으로 지역 일반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며 운영되는 철도. 이 노선들을 자회사로 분할하면? 적자가 나는 노선은 폐지되거나,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.



의료

먹으라는 약안 먹을 수 있나, 받으라는 치료 무시할 수 있나

- 자회사에 투자한 부자들의 이윤(배당금)만을 위한 운영으로 과잉진료가 더 심각해지고, 결국 병원비가 오르는 원인이 된다.
- 병원은 자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, 화장품, 온천 등 돈벌이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벌인다. 이어서 환자들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끔 과잉처방을 하여 의료비가 폭등한다.

요금인상



구조조정



철도

최소 인력 최대 근무시간으로 철도를 운영하다

-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철도 노동자들과 협의해 온 모든 조건 백지화.
- 자회사는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, 근무시간을 늘리고, 비정규직 외주 인력으로 채운다.



의료

바짝 벌어서 많이 챙기다, 먼저 인건비를 줄인다?

-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전문의료인력이 핵심. 때문에 인건비는 병원에서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.
- 그러나 병원이 이윤추구를 앞세우면 가장 먼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인력 구조가 왜곡돼 인력난이 심화됨, 고용불안 증가.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.



철도

승객 안전은 외면한 채 돈을 향해 달리는 민영화 철도

- 민영화 이후, 시설 점검 횟수와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영국에서는 철도 사고 급증.
- 한국에서도 철도공사 분할 자회사 계획이 제출된 이후 열차의 부기관사를 없애고, 차량 점검 주기를 늘리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변화가 스멀스멀 현실이 되고 있다.
- 여러 노선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철도에서 노선별 회사가 분리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.



의료

의료사고의 증가, 믿고 찾아갈 병원이 사라지다

- 인력 축소 비정규직 양산으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, 환자들은 인력난으로 의료사고에 노출. 병원의 인력 축소는 사망률을 높인다는 공식 보고가 있는데,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OECD 가입국 평균의 1/3에 불과.
- 돈이 안 되는 응급실, 신생아 중환자실 등은 아예 만들지 않아 균형 잡힌 의료 발전이 저하된다, 환자가 위험한 순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이 깊어진다.

안전위협



DANGER